



# 협회 일보



제 911호

2026.6.17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사칭 금융사기 주의 안내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재공고 빙자 입찰보증금·참가예치금 요구
- ◇ 출처 불명 재입찰 안내 시 반드시 해당 발주기관에 사실 확인필요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북지회(이민우 지회장) 제보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용역이 취소되어 긴급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안내한 뒤, 입찰보증금 또는 참가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재공고를 명목으로 팩스·이메일 등 서면입찰만을 허용하고 전자입찰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거나, ▲종전 입찰 참가업체에 한하여 응찰을 허용하며, ▲기초금액의 0.5% 수준의 참가예치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계도문서를 통해 각 지회 및 회원사에게 입찰공고 관련 금융사기 사례를 전파하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입찰행정(재공고 포함)은 서면입찰(팩스, 이메일 등) 방식이 아닌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해당 사례에 대한 조달청 안내사항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 [나라장터 공지사항] 입찰보증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예방 안내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의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팩스,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출처 불명의 재공고 안내나 입금 요청에 각별히 유의
-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요망